

사회·문화 미출제 요소

교육청이 알려주는

Ver. 2025

HEADMASTER

저자: 한정윤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학번
-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상위 0.03%
- 오르비 'he4dm4ster' 닉네임으로 활동 중
- S모 재종 사회·문화 콘텐츠팀 활동 경력
- 오르비 Hesco 사회·문화 모의고사 집필
- '서울대 1등급 노트' 저자(9월 중 출판 예정)

Instagram: @head_ma_study

팔로우하시면 매일 다양한 학습 자료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eagle5120@naver.com

수능에서 다루어지는 어느 과목이 그렇듯, 사회·문화 역시 많은 미 출제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미 출제 요소들이 새롭게 등장한 문항들을 우리는 '신유형'으로 부르기로 약속했고, 특정 시험지의 난이도는 이 '신유형'들이 얼마나 등장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되죠.

그렇기에 이러한 미 출제 요소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해 두는 것은, 이후 해당 요소가 새롭게 등장한 문항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미 출제 요소들은 어디에서 미리 확인을 한 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답이 되는 콘텐츠 중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것은 아마도 교육청 기출일 것입니다.

교육청 기출 중에서는 아직 평가원에서 다루지지 않은 미 출제 요소들을 다른 문항들이 많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 요소들은 이후 평가원 문제에서 종종 다루지기도 하죠.

3. 그림에서 갑~병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3점]

○○ 경영 대학원 학우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에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가요?

조교

제가 활동 중인 사내 노동조합의 중요한 회의를 마친 후에 동료 직원과 식사할 예정입니다.

갑

광고 회사 직원과 오전에 인터뷰를 마치고,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마을 독서 동호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을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 캠프에 가족과 함께 참여한 후, 같은 회사 동료인 갑과 함께 운동할 예정입니다.

병

- ① 갑이 속해 있는 이익사회는 2개이다.
- ② 을은 갑과 달리 비공식 조직에 속해 있다.
- ③ 을은 병과 달리 본질 의지에 의해 형성된 집단에 속해 있다.
- ④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공식 조직은 2개이다.
- ⑤ 갑, 을, 병 모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집단에 속해 있다.

'도입 발화/발문을 통한 사회 집단 제시'의 미 출제 요소를 다루었던 2023년 7월 모의고사 3번 문항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취업 특강 개설을 위한 재학생 대상 사전 조사
(A 대학교 취업 상담 센터)

ㄱ: 취업 상담 센터가 주관하는 취업 특강을 교내 독서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을과 들었음. 이번에는 총동창회의 주최로 ○○기업에서 진행되는 취업 특강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병이 추천해 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개설 여부가 궁금함.

ㄴ: □□시민 단체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후배와 여름 방학에 △△방송사가 주관하는 직업 체험 활동에 참가할 예정이라 취업 특강 참석이 어려움. 언론인이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방송인 협회의 특강 개최를 취업 상담 센터에 건의하고 있음.

ㄷ: 고등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대안 학교에서 수업 보조 강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갑이 ○○기업에서 진행되는 취업 특강에 같이 가자고 함. 졸업 후 대학원 진학도 고민 중이라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음.

- ① 갑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공식 조직의 개수는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② 을이 작성한 내용에 나타난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와 같다.
- ③ 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갑이 속해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많다.
- ④ 갑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는 병이 속해 있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보다 적다.
- ⑤ 갑과 을이 함께 속해 있는 비공식 조직은 없지만 을과 병이 함께 속해 있는 이익 사회는 있다.

해당 요소가 그대로 등장한 2024학년도 9월 모의고사 7번 문항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교육청에서 먼저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평가원에서 이후 등장할 수 있고, 그렇게 등장한 신유형은 상당한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당장 위에서 제시한 9월 모의고사 문항부터 69.6%의 오답률로 1컷이 44였던 해당 시험지 전체 2위의 오답률을 기록했죠.

그렇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2018년 이후 출제된 교육청 문항들에서 다루어진 미 출제 요소들에 대해 점검을 해 보고자 합니다.

본 1편에서는 2018~2020년까지 출제된 문제들에 대해, 이후 2편에서는 2021~2024년까지 출제된 문제들에 대해 알아 볼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평가원 시험에 등장하지 않았고, 등장했을 때 충분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고, 0점부터 5점까지의 중요도는 출제되었을 때 예상되는 난이도와 출제 가능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매겼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이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미 출제 요소들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2018년 고3 3월 모의고사 20번

20.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A국에서 모든 부모의 자녀는 1명씩이다.) [3점]

사회학자 갑은 A국에서 부모와 자녀의 계층을 조사하였다. 갑은 상층을 3, 중층을 2, 하층을 1로 나타낸 후, 부모의 계층에서 자녀의 계층을 빼서 세대 간 계층 격차 지수를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세대 간 계층 격차 지수에 따른 부모의 비율>
(단위: %)

구분	세대 간 계층 격차 지수					계	
	-2	-1	0	+1	+2		
부모 계층	상층	0	0	8	7	1	16
	중층	0	7	31	14	0	52
	하층	2	7	23	0	0	32
계	2	14	62	21	1	100	

- ① 자녀 세대에서 중층에 속한 사람이 과반수이다.
- ② 부모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에서는 하층의 비율이 상승하였다.
- ③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이 많다.
- ④ 부모 세대 계층 중 자녀와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의 비율은 상층이 가장 높다.
- ⑤ 부모는 하층, 자녀는 상층인 사례보다 부모는 상층, 자녀는 하층인 사례가 많다.

2.5/5

세대 간 계층 격차 지수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세대 간 계층 격차 지수'입니다.

상층, 중층, 하층을 기준으로 개인이 몇 개의 계층을 이동했는지에 관해 나타난 해당 요소는, 아직 평가원 시험에서는 등장한 적이 없죠.

그리고 실제로 해당 미 출제 요소의 모체가 되는 '계층 이동'유형은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기에, 이 요소는 실제로 출제되었을 때 충분히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평가원 기조 상 '계층 이동'유형은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지 않기에(작년 수능에서 등장한 딱 그 정도가 상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위에서 제시한 문제 정도만 살펴보고 가도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2018년 고3 10월 모의고사 2번

2.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국과 을국은 각각 9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별 구성원 수는 같다. 절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비율인데, 갑국과 을국의 최저 생계비는 중위 소득의 40%와 같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월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이다. 두 국가의 정부는 절대적 빈곤 가구의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와 같아지도록 해당 가구에 매월 생계 급여를 제공한다. 표는 갑국과 을국의 가구별 월 소득을 나타낸 것이다.

(단위: 백 달러)

갑국	가구	a	b	c	d	e	f	g	h	i
	월 소득	12	16	24	40	60	70	90	100	120
을국	가구	j	k	l	m	n	o	p	q	r
	월 소득	10	20	30	40	50	70	80	90	100

— < 보 기 > —

- ㄱ. 갑국에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두 가구이다.
- ㄴ. 을국은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이 같다.
- ㄷ. 정부의 월 생계 급여 지출액은 갑국이 을국의 2배이다.
- ㄹ. 갑국과 을국의 생계 급여 제공 방식은 근로 의욕을 자극하는 데 적합하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9/5

개수 세기형 도표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개수 세기형 도표'입니다.

위 문제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어진 가구들 중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가구의 개수를 직접 세도록 출제되었죠.

물론 현재 해당 개념은 도표의 형태로 출제가 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개수 세기'의 형태 자체는 사회 보장 제도 도표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판단해 미 출제 요소로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태의 도표가 출제된다면 '킬러'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일단 문제의 덩치가 어쩔 수 없이 커질 것이라,,) 그렇게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진 않았습니다.

3. 2019년 고3 3월 모의고사 19번

1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하나이다.) [3점]

표는 각 질문에 대한 A와 B의 답변을 모두 적은 후, 그 중 일부 답변을 보이지 않게 가린 것이다.

질문	답변	
	A	B
사후 처방보다 사전 예방의 성격이 강한가?	예	
(가)		
(나)	아니요	
계(답변 '예'의 개수)	2개	2개

- ① A는 공공 부조, B는 사회 보험이다.
- ② A와 달리 B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기초 연금 제도는 A에,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B에 해당한다.
- ④ (가)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 '의무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중요도: 3.2/5

답변 예/아니요의 개수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답변 예/아니요의 개수'입니다.

현재까지 평가원 기출에서 등장한 채점형 문항은 모두 '옳은 응답의 개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에, 위의 문항처럼 '응답 예/아니요의 개수'가 채점형 문항으로 등장한다면 충분히 학생들을 당황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위 문항의 경우는 A의 답변을 통해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버려서 난이도가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미 출제 요소를 활용하여 확정이 되지 않게끔, 다시 말해 케이스 분류 등의 사고를 통해 문항의 복잡도를 끌어올린다면 충분히 변별력 있는 형태의 문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4. 2019년 고3 10월 모의고사 5번

5. 밑줄 친 ㉠~㉣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연구 주제 : ㉠ A국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연구
- 연구 가설
 - <가설 1> ㉡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국민이 ㉢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을 것이다.
- 연구 설계 : A국 국민 1,000명을 선정하여 ㉣ 6개월 이상 국외 거주 경험 유무,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 유무, 다문화 수용성 지수(100점 만점)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크기는 각 집단의 평균 점수로 비교한다.
- ㉣ 자료 수집 결과(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수는 같으며, 무응답은 없음)

<다문화 수용성 지수의 평균 점수>

구분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	
	있음	없음
국외 거주 경험	있음	70점
	없음	50점
		60점
		40점

< 보 기 >

- ㄱ. ㉠은 방법론적 일원론에 기초한 연구이다.
- ㄴ. ㉡과 ㉢은 모두 표본이다.
- ㄷ. ㉣은 조작적 정의를 반영한 설문 조사 내용이다.
- ㄹ. ㉣에 따르면 가설 1, 2는 모두 수용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5/5

두 가지 변수의 존재 시 가설의 수용 여부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두 가지 변수의 존재 상황서 가설의 수용 여부'입니다.

사실 이 문제서 ㄱ, ㄴ, ㄷ 선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선지는 매우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ㄱ에서 물어보는 양적/질적 연구 여부, ㄴ에서 물어보는 표본에 대한 판단, ㄷ에서 물어보는 조작적 정의 모두 이 글을 참고할 정도로 사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바로 판별이 가능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ㄹ 선지에 있습니다: ㄹ 선지의 정/오 여부에 따라 2번 선지 또는 4번 선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정답인 2번 선지의 선택률은 고작 15.8%인데 반해 ㄹ을 잘못 판별했을 경우의 오답 선지인 4번 선지의 선택률은 무려 64.4%에 달하죠.

해당 ㄹ 선지는 <가설 1>, <가설 2>의 성립 여부에 관해 물어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설 2>는 수용되나 <가설 1>은 수용될 수 없기에 해당 선지는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우선 <가설 2>가 수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집단 중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70점, 없는 집단에서 60점인데 반해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없는 집단 중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50점, 없는 집단에서 40점이죠.

어떤 경우를 들고 오더라도,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높습니다.

이제 <가설 1>에 대해서 살펴보죠: 다문화 수용성 점수는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 중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70점, 없는 집단에서 50점, 국외 거주 경험이 없는 집단 중 다문화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60점, 없는 집단에서 40점입니다.

<가설 2>의 경우와는 다르게, <가설 1>의 경우에는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없는 집단이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더 높은 경우가 가능합니다.

국외 거주 경험이 없더라도 다문화 교육을 이수했으면 국외 거주 경험이 있더라도 다문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집단보다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더 높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에 비해 반드시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높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 세팅은 변수가 '다문화 교육 이수 여부'와 '국외 거주 경험 여부'의 2가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평가원에서는 이러한 세팅을 출제한 적이 없죠.

그러나 현재 평가원 시험에서는 연구 문항에 높은 난이도를 할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또 84.2%의 오답률에서 보이듯 이 요소는 출제된다면 매우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기에, 이 문제를 통해서 미리 온전하게 학습을 하고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5. 2020년 고3 4월 모의고사 15번

15. 표는 갑국의 연도별 소득 5분위 배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가구 유형은 남성 가구주 가구, 여성 가구주 가구로만 구분된다.) [3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가구	13.2	12.8	13.0	12.7
남성 가구주 가구	12.3	11.9	12.0	11.6
여성 가구주 가구	13.0	12.4	12.5	12.6

* '소득 5분위 배율 = 5분위 평균 소득 / 1분위 평균 소득'이며,
 5분위는 소득 상위 20% 이내, 1분위는 소득 하위 20% 이내 가구들을 의미함.
 ** 각 연도에서 개별 가구의 소득은 서로 다름.
 ***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1분위 평균 소득은 매년 상승하였음.

- ① 2016년 전체 가구 중 과반이 여성 가구주 가구이다.
- ② 2016년 남성 가구주 가구가 여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5분위 평균 소득이 낮다.
- ③ 2017년 여성 가구주 가구가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5분위 평균 소득과 1분위 평균 소득 간 액수 차가 크다.
- ④ 2018년 남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소득 상위 10% 이내 가구들의 평균 소득은 소득 하위 10% 이내 가구들의 평균 소득의 12배보다 크다.
- ⑤ 2019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5분위 평균 소득은 2018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4.8/5

가중 평균의 성립 여부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가중 평균의 성립 여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가중 평균'이라는 출제 요소를 활용한 도표 문항을 풀어 본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15번에서부터 가중 평균을 활용한 문항이 출제가 되었을 만큼 해당 출제 요소는 사문 도표 문항에 있어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중 평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체 집단이 가지는 비율의 분모 값은 해당 집단을 구성하는 각 집단이 가지는 비율의 분모 값을 합친 것과 같다.'

이 말만 들으시면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으실 것을 알기에, 20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15번 문항을 통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한 번 살펴 보도록 합시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나)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다)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가)~(다) 제도의 지역별 수혜자 비율 (단위: %)

제도 \ 지역	A	B	전체
(가)	㉠	8	10
(나)	3	6	4
(다)	10	7	㉡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함.
 ** 해당 지역 수혜자 비율(%) = (해당 지역 수혜자 수/해당 지역 인구) × 100

- ① ㉠은 11, ㉡은 8이다.
- ② (가)와 (나) 중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적다.
- ③ 갑국에서 우리나라의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3배이다.
- ④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혜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보다 많다.
- ⑤ 갑국 전체에서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혜자 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제도의 수혜자 수의 2배보다 적다.

(나) 수급자 비율에서, A 지역과 B 지역, 갑국 전체 모두에서 해당 비율의 분모 값은 '해당 지역 인구'입니다.

그리고 A 지역의 인구, 다시 말해 'A 지역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비율의 분모 값'과 B 지역의 인구, 다시 말해 'B 지역이라는 집단이 가지는 비율의 분모 값'을 합친 것은 갑국 전체의 인구, 다시 말해 '갑국 전체라는 집단이 가지는 비율의 분모 값'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 수급자 비율을 통해 A 지역 인구는 B 지역 인구의 2배라는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해당 미 출제 요소가 나타난 문항을 봅시다: 2016년을 예시로 봤을 때 '남성 가구주 가구'라는 집단이 가지는 비율, 다시 말해 '남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의 분모는 '남성 가구주 가구의 1분위 평균 소득'입니다.

그리고 '여성 가구주 가구'라는 집단이 가지는 비율, 다시 말해 '여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의 분모는 '여성 가구주 가구의 1분위 평균 소득'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라는 집단이 가지는 비율, 다시 말해 '전체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의 분모는 '전체 가구의 1분위 평균 소득'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중 평균이 성립을 하려면, '남성 가구주 가구의 1분위 평균 소득'과 '여성 가구주 가구의 1분위 평균 소득'을 합친 것이 '전체 가구의 1분위 평균 소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 소득 분위를 따로 산정하기에, 남성 가구주 가구와 여성 가구주 가구의 1분위 평균 소득을 합친 것이 전체 가구의 1분위 평균 소득이 될 수 없기에 해당 사례에서는 가중 평균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중 평균을 활용할 수 있었다 가정을 하더라도, 해당 비율들의 분모는 '1분위 평균 소득'이지 '가구 수'가 아니므로 가중 평균을 통해 가구 수를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구 수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1번 선지는 아예 판별이 불가능한 것이죠.

현재까지 평가원에서 가중 평균의 성립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경우는 없었으므로, 해당 문제를 통해 어떤 경우 가중 평균이 성립될 수 있는지 온전히 습득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6. 2020년 고3 7월 모의고사 10번

1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다음은 갑국과 을국의 난민 신청 및 난민 인정 비율이다. 두 국가의 국민이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으며, 난민 인정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에 한정한다. 또한 입국한 난민 수는 을국이 갑국의 2배이다.

(단위: %)

구분	갑국	을국
난민 신청 비율	40	50
난민 인정 비율	10	20

* 난민 신청 비율 = $\frac{\text{갑(을)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text{갑(을)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 \times 100$

** 난민 인정 비율 = $\frac{\text{갑(을)국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수}}{\text{갑(을)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 \times 100$

- ① 갑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 대비 갑국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수의 비율은 10%이다.
- ② 을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 대비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수의 비율은 30%이다.
- ③ 갑국으로 입국한 난민 수보다 을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가 많다.
- ④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 수는 을국이 갑국의 5배이다.
-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을국보다 갑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2.4/5

특정 비율에서 분자가
다른 비율에서 분모가 되는 경우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특정 비율에서 분자가 다른 비율에서 분모가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위 문제에서 '난민 신청 비율'의 분자인 '갑(을)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는 '난민 인정 비율'에서 분모로 쓰이고 있죠.

위의 미 출제 요소가 주목할 만한 지점은 다른 게 아니라, 해당 요소에 '가중 평균'이 결합해서 출제되었을 경우입니다.

바로 위 문제에서도 알아보았듯, 가중 평균은 분수의 분모가 가지는 크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기에 특정 비율에서 분자가 다른 비율의 분모로 들어가는 경우, 가중 평균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위 문제 조건에 '갑/을국 전체의 난민 인정 비율이 15%'가 추가로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중 평균을 활용해 갑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와 을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사람 수는 같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위 미 출제 요소에 가중 평균이 결합한다면 킬러 논란이 무조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엄청 높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고, 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해는 가중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되므로,,알아가 두시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7. 2020년 고3 7월 모의고사 18번

18. 표는 A ~ C의 일반적 특징을 기준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3점]

기준	비교 결과
가정과 일터의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가 A보다 정도가 큰 기준은 2개이다. • C는 정도가 가장 작은 기준이 2개이다.
구성원 간 직업의 이질성	
관계 형성의 공간적 제약	

- ① A는 B에 비해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② B는 A에 비해 의사 결정의 분권화 정도가 낮다.
- ③ C는 A에 비해 면대면 접촉 빈도가 낮다.
- ④ C는 B에 비해 사회의 변동 속도가 빠르다.
- ⑤ 사회의 다원화 정도는 $B > C > A$ 이다.

3.4/5

기준에 따른 비교 결과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기준에 따른 비교 결과'입니다.

여태껏 평가원에서는 수많은 퍼즐 형태의 개념 문항을 출제했으나, 위 유형의 퍼즐 문항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그만큼 출제가 된다면 많은 학생들을 힘들게 할 유형이기에 미리 한 번 봐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위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알아야 할 지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리 해당 문제를 한 번 풀어 보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대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 위 문항을 풀어 본 뒤, 다음 문항의 설명으로 넘어가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8. 2020년 고3 10월 모의고사 7번

7.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반문화, 주류 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3점]

표는 갑국에 존재하는 세 가지 문화가 갑국에서 A~C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타낸 것이다.

구분	A	B	C
◇◇ 문화	×	○	×
□□ 문화	○	×	○
☆☆ 문화	×	×	○

* ○: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 ① '☆☆ 문화'는 갑국에서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이다.
- ② '□□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 문화'를 향유하지 않는다.
- ③ 모든 A의 총합은 C이다.
- ④ B는 A와 달리 사회 발전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C는 B와 달리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5/5

개념의 포함 관계에 따른 구분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개념의 포함 관계에 따른 구분'입니다.

왜 '포함 관계'라는 워딩을 썼는지는, 위 문제를 한 번 풀어보면 바로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문화는 하위문화에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이를 이용하면 □□문화는 A, C에 동시에 해당하나 ☆☆문화는 C에만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A가 반문화, C가 하위문화라는 사실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A~C에서 제시된 반문화, 하위문화, 주류 문화에는 개념적 포함 관계가 존재하고, 바로 이 포함 관계 덕분에 위와 같은 문항이 출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포함 관계를 떠올리지 못하면, 위 유형의 문항도 해결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위 유형의 문항은 아직 평가원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위 유형을 이후에도 매우 꾸준히 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다)는 각각 반문화, 주류 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3점]

표는 갑국에 존재하는 문화 A~C가 T 시기와 T+1 시기에 (가)~(다) 중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구분	T 시기			T+1 시기		
	(가)	(나)	(다)	(가)	(나)	(다)
A	○	×	×	×	○	×
B	×	○	×	○	×	×
C	×	○	○	×	○	×

*○: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 ① T 시기에 A는 갑국의 하위문화에 해당한다.
- ② T 시기에 갑국에서 C를 향유하는 사람은 A를 향유하지 않는다.
- ③ T 시기와 달리 T+1 시기에 B는 갑국 전체 구성원 간 문화적 동질성을 드러내는 문화이다.
- ④ A~C 중 T 시기와 T+1 시기에 모두 갑국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거나 대립하는 성격을 지닌 문화가 있다.
- ⑤ (나)는 (다)와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가)로 변화하기도 한다.

2021년 고3 10월 모의고사 17번

1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에서 △△문화가 t 시기~t+2 시기에 A~C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반문화, 주류 문화, 하위문화 중 하나이다.

구분	t 시기	t+1 시기	t+2 시기
A	○	○	×
B	○	×	×
C	×	×	○

*○: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 ① 모든 A는 B에 해당한다.
- ② C는 A와 B의 총합으로 구성된다.
- ③ t 시기에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C를 향유하지 않는다.
- ④ t+1 시기에 △△문화는 반문화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문화이다.
- ⑤ t+2 시기에 △△문화는 갑국의 지배적 문화에 저항하는 성격을 가진다.

2023년 고3 3월 모의고사 17번

비록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출제한 문항들에서 위 유형은 문화의 종류에만 활용이 되었으나, 위 유형은 어디까지나 '개념의 포함 관계' 덕분에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것이기에 개념의 포함 관계가 존재하는 단원이면 언제든지 연계가 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단원에서 위와 같은 유형을 활용하여 출제가 될 수 있
겠죠.

이와 같이 해당 유형은 그 난이도보다도 활용 가능성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중요도 역시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기에 여러분들은 첨부한 문제를 통해 위 유형을 반드시
마스터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9. 2021년 고3 7월 모의고사 14번

14.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순환론과 진화론 중 하나이다.)

표는 사회 변동 이론 A, B를 학생 갑, 을이 구분한 것이다. 두 학생 모두 두 개의 진술만을 옳게 구분하였다.

진술	갑	을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A	A
운명론적 관점에서 사회 변동을 설명한다.	A	B
(가)	B	A

- ① A는 흥망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② B는 서구 중심적인 사회 변동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③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에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본다.
- ④ (가)의 진술을 옳게 구분한 학생은 '갑'이다.
- ⑤ (가)에 '사회 변동에 대한 역동적 대응이 용이하다.'가 들어갈 수 있다.

2.2/5

해당하는 개념의 답변

해당 문항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해당하는 개념의 답변'입니다.

현재까지 평가원 시험에서 출제된 채점형 문항은, 옳은 진술의 답변 또는 '예', '아니요'의 답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자의 형태는 2020학년도 수능에서 고난도 문항으로 등장한 바 있으며, 후자의 형태는 2021학년도 9평, 2021학년도 수능 등의 시험에서 이미 고난도 문항으로 등장했죠.

10. 다음은 일탈 이론 A~C에 대한 수행 평가 및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낙인 이론, 머튼의 아노미 이론, 차별 교제 이론 중 하나이다.) [3점]

<수행 평가 과제>		
학생	과제 내용	
갑	A와 구분되는 B의 특징 3가지 서술하기	
을	B와 구분되는 C의 특징 3가지 서술하기	
병	C와 구분되는 A의 특징 3가지 서술하기	
<각 학생의 서술 및 교사의 채점 결과>		
학생	서술 내용	점수
갑	1. 차별적인 제재가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2점
	2. 일탈 행동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주목한다.	
	3. 일탈자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을	1. 사회 규범의 통제력 회복을 일탈 행동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본다.	①
	2. 일탈 행동의 원인을 부정적 자아 정체성 형성에서 찾는다.	
	3.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본다.	
병	1.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가 일탈 행동을 억제한다고 본다.	1점
	2. 일탈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지속적인 일탈 행동의 원인이라고 본다.	
	3. _____ (가)	

* 교사는 각 서술별로 채점하고, 서술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보 기>

- ㄱ. ①은 2점이다.
- ㄴ. (가)에는 '일탈 행동은 비행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학습된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 ㄷ. B는 최초의 일탈 행동보다 반복적 일탈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 ㄹ. C는 일탈 행동 예방 방안으로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을 지지할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15. 다음은 사회 변동 이론 A, B 관련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진화론과 순환론 중 하나이다.) [3점]

질문	답변	
	갑	을
A는 사회가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한다고 보는가?	예	아니요
B는 홍량성쇠를 거듭한 국가의 사례를 설명하기에 적합한가?	아니요	예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가?	예	㉠
(가)	아니요	예
점수	3점	2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답변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보 기>

- ㉠. A는 서구 제국주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B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으로 인식한다.
 ㉢. ㉠은 '예'이다.
 ㉣. (가)에는 'B는 A와 달리 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인간 행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21학년도 고3 9월 모의고사 15번

1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중 하나이다.)

질문	답변	
	갑	을
A는 직업 유형 간 사회적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아니요	㉠
(가)	예	예
A는 차등 분배가 갖는 사회적 순기능을 강조하는가?	아니요	예
B는 사회 불평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는가?	아니요	예
점수	2점	1점

* 교사는 각 질문별로 채점하고, 답변 하나가 맞을 때마다 1점씩 부여함.

<보 기>

- ㉠. (가)에는 'A는 B와 달리 개인의 귀속적 요인이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은 '아니요'이다.
 ㉢. A는 균등 분배가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본다.
 ㉣. B는 최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대다수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번

그러나 최근 평가원 시험에서, 위에서 보여지는 '해당하는 개념의 답변'의 형태는 아직 유의미한 고난도 문항으로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위 문항은 난이도가 매우 쉬운 형태였으나, 위 문항에서 나타난 형태는 언제든지 다시 고난도 문항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형태나 현재까지 평가원에서 등장한 채점형 문항의 형태나 따라가야 하는 근본적인 사고 과정은 동일하므로, 기존의 채점형 문항을 해결하던 것과 같이 케이스 분류를 활용한다면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진술에 해당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파악한 뒤, 각 학생이 답한 개념이 해당하는 개념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10. 2021년 고3 10월 모의고사 11번

1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문화 상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중 하나이다.) [3점]

표는 각 질문에 대한 응답 및 옳은 응답 수를 나타낸 것이다.

질문	응답			옳은 응답 수
	갑	을	병	
A는 문화 간 우열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가?	아니요	㉠	예	2개
B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큰가?	예	예	아니요	㉡
C는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는가?	아니요	아니요	예	1개
(가)	아니요	예	아니요	2개

— < 보 기 > —

- ㄱ. ㉠은 '아니요'이다.
 ㄴ. ㉡이 '1개'이면, A는 B와 달리 타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ㄷ. B는 C와 달리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ㄹ. (가)에 'B는 A와 달리 국수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가?'가 들어가면, ㉡은 '2개'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5

질문별 옳은 응답의 수

해당 문항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질문별 옳은 응답의 수'입니다.

기존 평가원 문항에서 등장했던 채점형 문항의 형태는 모두 '각 학생별 옳은 응답 수'이었 습니다.

위와 같이 질문별로 옳은 응답의 수를 제시한 형태의 문항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해당 형태도 평가원에 등장한다면 그 낯설음으로 인해 충분히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소는 익숙해지고 나면, 오히려 학생별 옳은 응답 수에 비해 더 쉬운 유형으로 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구분해야 하는 기준이 매우 명확하기 때문이죠.

각 질문별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 케이스 구분을 하고 나면, 위 요소를 활용한 문항 은 어느새 쉽게 해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 문제의 경우에는 케이스 구분을 할 필요도 없이, 세 번째 질문에서 '예'가 한 개인데 옳 은 응답이 한 개인 점을 이용하면 바로 C가 무엇인지를 확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을 한 뒤, 나머지 것들에 대해 케이스 분류를 해 나가면서 구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당 요소의 중요도에 1.8점밖에 주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11. 2022년 고3 4월 모의고사 2번

2. 표는 질문에 따라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 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구분	A	B	C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	㉡
(가)	㉡	㉠	㉡

* ㉠과 ㉡은 각각 '예'와 '아니요' 중 하나임.

- ① ㉠은 '예', ㉡은 '아니요'이다.
- ② C는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 ③ 기초 연금 제도가 A에 해당한다면, B는 사회 서비스이다.
- ④ B가 공공 부조라면, A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⑤ (가)에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2.8/5

예, 아니요의 개수에 따른 개념의 구분

해당 문항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예, 아니요의 개수에 따른 개념의 구분'입니다.

위 문제에서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제도는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사회 보험의 한 제도이고, 이에 따라 바로 C를 사회 보험, ㉡을 '예'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예'와 '아니요'조차 ㉠, ㉡으로 주어진 채 확정되지 않아 처음 마주했을 땐 당황할 수 있지만, 찬찬히 생각해보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요소입니다.

주어진 개념의 개수가 짝수이고, 그 개념 중 '예'로 대답할 수 있는 개념의 개수와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개념의 갯가 같지 않은 이상 언제나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발명, 발견'의 예시에서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의 질문이 주어진다면 '예'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발명, 발견'의 2개이므로 이를 활용해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해당 요소가 등장한다면, 먼저 주어진 질문에 '예' 또는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개념이 몇 가지인지를 생각하신 뒤 이후 문제 풀이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12. 2022년 고3 10월 모의고사 20번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3점]

○ 갑국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한 장면

Q: ○○ 연금을 받고 있으면 △△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의 기본적인 수급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소득 인정액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이면 △△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연금: 가입자, 고용주 등이 분담해서 마련한 기금을 통해 노령, 장애 등에 대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 갑국의 지역별 인구 대비 ○○ 연금, △△ 연금 수급자 비율(%)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 연금 수급자	20	20	㉠	25
△△ 연금 수급자	10	15	15	㉡
○○ 연금과 △△ 연금의 중복 수급자	5	10	10	9

* 갑국은 A~C 지역만으로 구성되며, ○○ 연금과 △△ 연금의 중복 수급자의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 ① ㉠은 14, ㉡은 30이다.
- ② 갑국의 ○○ 연금 수급자는 △△ 연금 수급자보다 적다.
- ③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는 A 지역이 B 지역보다 많다.
- ④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는 B 지역이 C 지역보다 많다.
- ⑤ ○○ 연금과 △△ 연금 중 어느 하나의 수급자도 아닌 사람은 C 지역이 A 지역보다 많다.

4.2/5

수급자 비율에 따른 인구의 결정

해당 문항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수급자 비율에 따른 인구의 결정'입니다.

기출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위 문제가 어느 문제의 변형인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15번이 바로 그것이죠.

두 문제 모두 두 제도 각자와 두 제도의 중복 수급자 비율이 제시되고 또 세 지역과 전체 지역의 수급자 비율이 제시되어, 가중 평균을 이용해 각 지역의 인구를 구해야 하는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문제 사이에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15번은 두 지역 간의 인구 관계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반면, 위 문제는 '중복 수급자의 수'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죠.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3점]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중 (가), (나)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C 지역	전체
(가) 수급자	45	㉠	60	60
(나) 수급자	㉡	19	19	20
(가)와 (나) 중복 수급자	6	10	4	6

* 갑국은 A~C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65세 이상 인구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임.

- ㉠은 65, ㉡은 23이다.
-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B 지역보다 높다.
- 강제 가입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이 A 지역의 3배이다.
-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A 지역 수급자 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C 지역 수급자 수보다 많다.
- 선별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보편적 복지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C 지역이 가장 높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인구를 바로 확정지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일단 두 지역의 인구를 미지수로 둔 다음, 해당 인구를 중복 수급자 비율에 대입해 미지수 간 관계를 확정짓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죠.

A 지역의 전체 인구를 $100a$, B 지역의 전체 인구를 $100b$ 로 두었을 때 중복 수급자의 수는 A 지역이 $5a$, B 지역이 $10b$ 인데 후자는 전자의 3배이므로 $15a=10b$, $1.5a=b$ 이므로 B 지역 전체 인구는 A 지역 전체 인구의 1.5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단계 더'의 존재성은, 해당 문제가 가지는 체감 난이도를 훨씬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위 문제의 사례에서는 비율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중복 수급자'의 수를 가지고 인구 관계를 제시했기에 그나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지만, 만약 '특정 제도의 단독 수급자'의 수를 가지고 인구 관계를 제시했으면 난이도는 더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해당 요소는 실제로 이후 시험에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요소이기에, 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기출과 사설 문제들을 이용해 연마를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3. 2023년 고3 7월 모의고사 7번

7.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수행 과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를 선택한 후, 해당 관점에서 모든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하세요.

질문	학생	갑	을	병	정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예	예	아니요	아니요
집단 간 갈등과 대립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이해하는가?		아니요	예	아니요	아니요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가?		예	예	아니요	예
(가)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나)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 교사 평가: 본인이 선택한 하나의 관점에서 옳은 답변만을 한 학생은 2명뿐입니다.

- ①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만을 한 학생 중 사회 각 부분을 상호 의존적 관계로 보는 관점을 선택한 학생은 없다.
- ②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만을 한 학생 중 사회 제도를 계급 재생산의 수단으로 보는 관점을 선택한 학생이 있다.
- ③ 갑은 병과 달리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만을 하였다.
- ④ (가)에는 '개인 행위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나)에는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2.7/5

특정 관점에서의 일관된 답변

해당 문항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특정 관점에서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이 역시도 1, 2번 미출제 요소와 유사하게 채점형 문항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아직 평가원에서는 해당 요소를 활용해서 출제를 한 적이 없죠.

하지만 이 요소를 활용한 유형의 문항 역시도 풀이 방법을 알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질문에 '예'와 '아니요'로 대답할 관점을 각각 표시를 해 둔 뒤, 특정 관점이 내어놓을 '예' 또는 '아니요'의 대답을 그대로 내어놓는 학생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위 문제에서는

1번 질문은 예: 기능론 아니요: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2번 질문은 예: 갈등론 아니요: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3번 질문은 예: 기능론, 갈등론 아니요: 상징적 상호 작용론

이렇게 표시를 해 두면 갑, 병이 각각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의 입장에서 일관된 답변을 하고 있음을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14. 2023년 고3 10월 모의고사 19번

19. 다음 자료의 갑 지역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 A: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
 - B: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
- 우리나라 갑 지역의 A, B 수급자 비율 분석

(단위: %)

구분	2020년	2021년
A의 수급자 중 B의 수급자 비율	20	35
B의 수급자 중 A의 수급자 비율	25	28

* 갑 지역 인구는 100만 명으로 일정하고, 갑 지역 인구 중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2020년과 2021년이 20%로 같음.

- ① 2020년에 수급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보다 적다.
- ② 2021년에 의무 가입의 원칙을 적용하는 제도의 수급자가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보다 많다.
- ③ 202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보다 4만 명 많다.
- ④ 2020년 대비 2021년에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의 증가율은 50%이다.
- ⑤ 2020년 대비 2021년에 공공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과 달리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급자에만 해당하는 사람은 증가하였다.

4.2/5

특정 제도의 수급자 중
다른 제도의 수급자 비율

해당 문항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특정 제도의 수급자 중 다른 제도의 수급자 비율'입니다.

위 문제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특정 제도의 수급자 비율이 20%라는 정보를 준 채로 시작을 했기에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소는, 얼마든지 더 어려운 난이도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와 수급자 중 B의 수급자 비율', 'B의 수급자 중 A의 수급자 비율'의 정보에 더해 '전체 인구 중 A 또는 B의 수급자 비율'의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A의 수급자 또는 B의 수급자 비율을 미지수로 둔 뒤 A와 B의 중복 수급자 비율을 미지수로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구하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 비율을 미지수로 표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A와 수급자 중 B의 수급자 비율', 'B의 수급자 중 A의 수급자 비율'에 아예 가중평균을 먹여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는 제가 얼마 전 배포한 Hesco Free 모의고사 1회에서 사용한 아이디어이기도 합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자료 1>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

- (가)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노령 연금,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등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
- (나)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자료 2> 갑국의 지역별 인구 중 (가), (나) 제도 수급자 비율

(단위: %)

구분	A 지역	B 지역	갑국 전체
(가)의 수급자 중 (나)의 수급자 비율	25	75	50
(나)의 수급자 중 (가)의 수급자 비율	20	①	40

* 갑국은 A, B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 갑국의 모든 인구는 (가), (나)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제도를 수급한다.

- ① ①에 들어갈 값은 60보다 작다.
- ② 전체 인구 대비 의무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비율은 A 지역과 B 지역이 같다.
- ③ 선별적 복지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A 지역이 B 지역의 2배이다.
- ④ 갑국 전체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한 제도만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에서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⑤ 전체 인구 대비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중복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A 지역의 4배이다.

이 경우 가중평균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는 인구 비는 각 지역의 전체 인구 비가 아니라, 분모가 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의 비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위 요소에는 얼마든지 심화된 형태로 활용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므로, 위 문제를 통해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익혀 둔 뒤 사설 문항들을 통해 심화된 형태를 연습해 두면 될 것입니다.

15. 2024년 고3 4월 모의고사 15번

15.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표 1>, <표 2>는 각각 갑국 근로자의 근로 형태별 근로자 성비와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단, 근로 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된다.

<표 1> 근로 형태별 근로자 성비 <표 2> 성별 비정규직 비율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남성	여성
근로자 성비	400	150	비정규직 비율(%)	60	80

* 근로자 성비: 여성 근로자 100명당 남성 근로자 수

** 성별 비정규직 비율(%) = $\frac{\text{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text{성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수의 합}} \times 100$

— < 보 기 > —

- ㄱ. 전체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0%이다.
- ㄴ. 남성 정규직 근로자 수는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많다.
- ㄷ. 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낮다.
- ㄹ.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7/5

두 가지 범주에 따른 집단의 구분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두 가지 범주에 따른 집단의 구분'입니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2019년 고3 10월 모의고사 5번 문제와 유사하면서도 또 다른 형태 이죠.

위 문제에 있어, 갑국의 근로자들은 두 가지 범주에 따라 구분됩니다: '근로 형태'와 '성별' 이 바로 그것이죠.

이 경우 여러분들을 가장 당황하게 하는 요소는, 위 정보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가지 범주, 다시 말해 성별이나 지역, 근로 형태에 따라서 집단을 정리해 본 적은 많을 것이나 그들 중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해 정리해 본 적은 없을 것이니 말이죠.

이에 대해 제가 제시하는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출제된 형태의 계층 도표를 해결할 때 5x5 표를 그렸듯, 4x4 형태의 표를 그리면 됩니다.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위와 같은 형태의 표에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우선 정규직의 근로자 성비가 400, 비정규직의 근로자 성비가 100이니 정규직 남성, 여성 수를 각각 400a, 100a로 두고 비정규직 남성, 여성 수를 각각 150b, 100b로 둘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과 같이 표를 채울 수 있겠죠.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성	400a	150b	400a+150b
여성	100a	100b	100a+100b
전체	500a	250b	500a+250b

이제 성별 비정규직 비율을 활용해 a와 b 사이의 관계를 구하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모든 내용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남성 성별 비정규직 비율이 60%이므로 $150b/(400a+150b)=6/10$, $b=4a$ 임을 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모든 정보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성	400a	600a	1000a
여성	100a	400a	500a
전체	500a	1000a	1500a

위 문항은 두 범주에 따른 집단의 수를 구하는 것 그 자체를 요구했기에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으나, 만약 두 범주에 따른 집단의 수를 가중평균에 접목한다면 매우 높은 난이도의 문항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표는 갑국의 성별과 고용 형태로 구분되는 근로자 집단별 월평균 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단, 남성 정규직 근로자는 2010년과 2020년이 200만 명으로 같다.

(단위: 달러)

구분	2010년			2020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남성	5,000	3,000	4,000	8,000	4,600	6,300
여성	4,000	2,000	3,000	5,000	3,800	4,200
전체	4,500	2,500	3,500	7,000	4,200	5,400

- ① 2010년에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보다 많다.
- ② 2020년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100만 명 많다.
- ③ 비정규직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2020년이 2010년보다 높다.
- ④ 2010년 대비 2020년에 월평균 임금 상승률은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높다.
- ⑤ 2010년에는 2020년과 달리 고용 형태별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액수 격차가 성별 근로자 간 월평균 임금 액수 격차보다 크다.

해당 아이디어를 적용한 문항이 위에서 보이듯 2025학년도 수능 대비 수능완성에 수록되어 있으니, 한 번 풀어보면서 가중평균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6. 2024년 고3 7월 모의고사 2번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 집단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연구 1]
 갑은 실험 참가자들을 다수의 모둠으로 구분한 후 모둠별 구성원에게 각각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후 일정한 길이의 표준선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후, 별도로 제시된 서로 다른 선들 중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모두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선택하였다. 이후 갑은 모둠별로 ㉡ 1번 참가자를 제외한 ㉢ 나머지 번호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게 지시하고, 참가자들에게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다시 골라 보도록 하였다. 반복 실험 결과, 1번 참가자의 43%가 다른 참가자의 선택에 ㉣ 동조 반응을 보였다.

[연구 2]
 갑은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는 실험 참가자 수를 조정하여 모둠별 총인원만 변화시키고, 그 외 다른 실험 상황은 [연구 1]과 동일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번 참가자의 동조율은 모뎀 인원이 2명일 때는 0.3%, 3명일 때는 13.6%, 4명일 때는 31.8%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3]
 갑은 실험 참가자 4명은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1명은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고르도록 하고, 그 외 다른 실험 상황은 [연구 1]과 동일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번 참가자의 34%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었다.

- ① ㉡은 실험 집단, ㉢은 통제 집단이다.
- ② ㉣은 ㉠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③ [연구 1]에서 갑은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 ④ [연구 2]는 '집단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율이 증가할 것이다.'를, [연구 3]은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율을 낮출 것이다.'를 지지한다.
- ⑤ 갑은 [연구 1], [연구 2], [연구 3]에서 모두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5/5

조작적 정의의 판단
사전/사후 검사의 판단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조작적 정의의 판단'과 '사전/사후 검사의 판단'입니다.

전자는 2번 선지, 후자는 3번 선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요소이죠.

먼저 '조작적 정의의 판단'에 대해 알아보시다: '조작적 정의'란, 가설에서 사용한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를 하는 그 순간을 바로 조작적 정의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업 성취도'의 예시를 들면, '학업 성취도는 직전 시행된 모의고사의 성적을 바탕으로 측정하자!'의 판단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 조작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 문항의 사례에서 조작적 정의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위 사례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정답입니다.

물론 연구를 진행하기는 했기에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을 것이나, '집단의 영향력은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는 정도로 측정하자!'의 판단을 내리는 순간이 지문에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조작적 정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전/사후 검사의 판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전 검사'는 종속 변인을 실험 처치를 하기 전 측정하는 것이고, '사후 검사'는 실험 처치를 한 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연구에서 종속 변인은 '개인의 행동'이고, 실험 처치는 '나머지 번호 참가자들이 모두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험 처치가 이루어지기 전, 표준선과 같은 길이를 가진 선을 고르게끔 하는 '개인의 행동'을 측정한 [실험 1]의 2~4번째 줄은 사전 검사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실험 처치가 이루어진 후 다시 표준선과 같은 길이를 가진 선을 고르게끔 하는 '개인의 행동'을 측정한 [실험 1]의 뒤에서 3번째 줄~마지막은 당연히 사후 검사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위의 요소는 아직 평가원이 출제한 연구 사례 문항에서 깊게 다루어진 적 없는 것이고, 현재 연구 사례를 깊게 물어보는 평가원 시험의 경향상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들이니 위 문항을 통해 미리 자세하게 봐 두시기 바랍니다!

17. 2024년 고3 7월 모의고사 15번

2.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은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 집단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연구 1]

갑은 실험 참가자들을 다수의 모둠으로 구분한 후 모둠별 구성원에게 각각 1번부터 6번까지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후 일정한 길이의 표준선을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후, 별도로 제시된 서로 다른 선들 중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고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모두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선택하였다. 이후 갑은 모둠별로 ㉡ 1번 참가자를 제외한 ㉢ 나머지 번호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게 지시하고, 참가자들에게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다시 골라 보도록 하였다. 반복 실험 결과, 1번 참가자의 43%가 다른 참가자의 선택에 ㉣ 동조 반응을 보였다.

[연구 2]

갑은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고르는 실험 참가자 수를 조정하여 모둠별 총인원만 변화시키고, 그 외 다른 실험 상황은 [연구 1]과 동일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번 참가자의 동조율은 모뎀 인원이 2명일 때는 0.3%, 3명일 때는 13.6%, 4명일 때는 31.8%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3]

갑은 실험 참가자 4명은 표준선과 길이가 다른 선을, 1명은 표준선과 길이가 같은 선을 고르도록 하고, 그 외 다른 실험 상황은 [연구 1]과 동일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번 참가자의 34%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얻었다.

- ① ㉡은 실험 집단, ㉢은 통제 집단이다.
- ② ㉣은 ㉠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 ③ [연구 1]에서 갑은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 ④ [연구 2]는 '집단 구성원의 수가 많아질수록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율이 증가할 것이다.'를, [연구 3]은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수 의견에 대한 동조율이 클 것이다.'를 지지한다.
- ⑤ 갑은 [연구 1], [연구 2], [연구 3]에서 모두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5/5

벤 다이어그램의 빈칸 채우기

해당 문제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벤 다이어그램의 빈칸 채우기'입니다.

현재까지 평가원 시험에서 두 가지 변수를 가진 벤 다이어그램이 출제된 사례는 많이 있었으나, 그 사례들은 작년 수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제도 1의 수급자 비율', '제도 2의 수급자 비율', '제도 1과 2의 중복 수급자 비율'이 주어진 형태였습니다.

1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갑국의 사회 보장 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와 동일하다. A는 상호 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이고, B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총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표는 갑국의 전체 인구 중 A, B 수급자 비율과 시기에 따른 비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t년 대비 t+3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50% 증가하였다.

<표 1> t년의 수급자 비율

(단위: %)

A 수급자	B 수급자	A와 B의 중복 수급자
40	15	8

<표 2> t년 대비 t+30년의 수급자 비율 차이*

A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B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A와 B의 중복 수급자
2	-3	8

* 수급자 비율 차이 = t+30년의 수급자 비율 - t년의 수급자 비율

- ① t년에 전체 인구 중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비율은 A와 B의 중복 수급자 비율보다 크다.
- ② t+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t년에 A나 B 어느 것도 받지 않는 비(非)수급자 수보다 많다.
- ③ t+30년에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에만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A와 B의 중복 수급자 수보다 적다.
- ④ t년에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는 t+30년에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의 수급자 수의 2배이다.
- ⑤ t년 대비 t+30년에 A 수급자 수의 증가율은 B 수급자 수의 증가율보다 크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5번

위 형태에서 '제도 1 or 2만의 수급자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급자 비율에서 중복 수급자 비율을 빼면 되고, 이 아이디어는 이미 많은 빈도로 출제가 되었죠.

그러나 위 문항은 다릅니다: 위 문제는 '제도 1만의 수급자 비율'과 '제도 2만의 수급자 비율'을 제시한 뒤, 이를 이용해 '제도 1과 2의 중복 수급자 비율'을 구하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이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해 정답을 찾아내지 못했으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전체 비율에서 '제도 1만의 수급자 비율'과 '제도 2만의 수급자 비율'을 모두 빼면 '제도 1과 2의 중복 수급자 비율'이 등장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구분	A만의 수급자 비율	A와 B 중복 수급자 비율	B만의 수급자 비율
(가) 지역	65	10	25
(나) 지역	71	15	14

이 요소가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하는, 다시 말해 중복 수급자가 제시된 형태의 문항에서는,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위와 같은 형태 외에도 '제도 1 또는 2의 수급자 비율', '제도 1의 수급자 비율', '제도 2의 수급자 비율'의 3가지가 주어진 형태 등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는 언제나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문항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실제로 그려보자!'

이것이 이 문항이 주는 교훈이자, 이 미 출제 요소가 응용되어 출제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8. 2024년 고3 7월 모의고사 19번

1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하나임.) [3점]

[과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에 대한 옳은 설명을 2개씩 서술하시오.

학생	설명
갑	·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value="(가)"/>
	·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value="(나)"/>
을	· A와 달리 B는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 전체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다고 본다.
	·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value="(다)"/>
병	· C는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input style="width: 80%;" type="text" value="(라)"/>

* 교사는 학생별로 각각 채점하고, 옳은 설명은 1개당 1점, 틀린 설명은 1개당 0점을 부여함.

[평가 결과] 세 학생의 평균 점수는 1점입니다. 갑은 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병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① C는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한다.
- ② A와 달리 B는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 ③ (다)에는 'A는 사회가 본질적으로 균형을 추구한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가)가 'C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이면, (나)에는 'C와 달리 B는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설명한다.'가 들어갈 수 있다.
- ⑤ (다)와 달리 (라)에는 'B와 달리 C는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본다.'가 들어갈 수 있다.

2.1/5

각 학생의 평균 점수

해당 문항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각 학생의 평균 점수'입니다.

위 문항의 경우는 '갑은 을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병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의 힌트가 주어져 있기에 곧바로 갑이 1점, 을이 2점, 병이 0점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주어졌죠.

그러나 위 요소는 얼마든지 더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 을, 병이 받은 점수의 상관관계 조건을 빼고, 각자가 얻은 점수를 각자의 진술을 통해 추측하게끔 출제가 된다면 해당 요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요소가 등장한 것은 교육청까지 포함해도 위 문항이 최초이기에, 해당 요소에 대해서 그 정도로 심도 있는 대비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한 위 요소는 너무 구체적인 요소이기에, 여기서 언급한 다른 요소들에 비해 평가원에서 정확하게 짚어서 출제를 할 확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하죠.

따라서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각 학생의 평균 점수가 주어지면, 모든 학생의 총합 점수가 몇 점이 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정도입니다.

여타 다른 채점형 문항들처럼, 위 문항도 시작 지점을 잘 잡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며, 바로 그 시작 지점은 모든 학생의 총합 점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각 학생이 확실하게 얻은 점수를 파악하고 나면,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각 학생이 실제로 얻은 점수가 몇 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출제가 될 것입니다.

이 정도만 기억한 채,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9. 2024년 고3 7월 모의고사 20번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3점]

표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t년에 갑국과 을국 모두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50%이다. t년에 비해 t+30년에 부양 인구는 갑국이 10%, 을국이 20% 감소하였고, 을국의 노년 인구는 100% 증가하였다. 단, 동일 시기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같다.

구분	갑국		을국	
	t년	t+30년	t년	t+30년
합계 출산율(명)	1.76	0.78	2.06	1.18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	2 : 3	3 : 10	1 : 1	2 : 5

*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유소년 부양비 = {유소년 인구(0~14세 인구) / 부양 인구(15~64세 인구)} × 100

*** 노년 부양비 =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 부양 인구(15~64세 인구)} × 100

****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20%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함.

- ① t년에 갑국은 고령 사회, 을국은 초고령 사회이다.
- ② t+30년에 갑국과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 같다.
- ③ t+30년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저출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④ t년 갑국의 유소년 인구나 t+30년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같다.
- ⑤ t년에 노년 인구는 을국보다 갑국이 많았으나 t+30년에 노년 인구는 갑국보다 을국이 많다.

4.7/5

부양비 사이의 비=인구의 비

해당 문항에서 등장한 미 출제 요소는, 바로 '부양비 사이의 비 = 인구의 비'입니다.

위 문항에는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의 조건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해당 조건은 인구 부양비를 구해서 비교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모두 부양 인구를 분모로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부양 인구 : 노년 인구/부양 인구'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쪽에 부양 인구를 곱해주고 나면,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는 모두 분모로 부양 인구를 공유하므로 '유소년 부양비 : 노년 부양비'는 '유소년 인구 : 노년 인구'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요소는 아직 한 번도 평가원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으나, 인구 부양비 도표 자체가 최근 킬러 유형으로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위 사항에 대해 알아둔다면 분명히 도움을 받는 순간이 오리라 확신합니다.